

# 부당 징계에 맞서 싸우는 학생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 한신대 등록금 인상 반대 시위에 무기정학

한신대학교에서는 비민주적·폭력적인 학교운영과 학생자치권 탄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당국은 59대 총·부총학생회장 등 4명의 학생을 무기정학에 처했고, 수업 중인 교수님을 직위해제해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했으며, 영자신문을 폐간 초치하고, 무자비한 등록금 인상을 추진해 학생들과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006년 등록금 인상을 11퍼센트에 반대한 59대 총학생회는 투쟁을 진행했지만, 학교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 개강 이후 단 한 차례도 학생들과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전체학생총회를 열어 학생들의 전원 동의를 받아 본관을 점거했습니다.

2007년 와서, 학교 당국은 정당한 등록금 투쟁에 참여했던 59대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외 2인의 학생에게 '무기정학'이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 논의 과정에 학생들은 전혀 참여할 수 없었으며, 일방적으로 징계를 통보받았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측이 등록금 인상이라는 자신의 책임은 언급하지 않고 징계를 통해 모든 것을 학생들의 잘못으로 돌리려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징계 사유 공개 및 면담을 통한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중이지만 학교는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학생들을 경악시킨 것은 "징계 상태에서 등록금은 감면할 수 없다"는 학칙을 내세우며 무기정학을 받은 학생들에게까지 등록금 납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학교 당국은 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으로 제적 처리하겠다고 말합니다.

6월 8일 교무회의를 통해 무기정학생이 미등록 제적 처리되지 않도록 각 단위의 온라인 탄원운동을 진행해 주세요!!

한신대학교 홈페이지 | www.hsackr  
비대위 메일 | hs\_please@naver.com  
응원 문지를 보내 주세요!

010-3306-3887



## 고려대 출교철회 천막농성 410일째, 대화조차 거부하는 학교 당국

**출교 조치란?** 학생들을 학교에서 퇴학시키고 학적에서 영구 제명하는 징계 처분. 제적의 경우 재입학이 가능하지만 출교는 아예 입학사실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다.

2005년 말 병설보건대를 통폐합한 고려대는 보건대 학생들에 대한 차별을 계속했습니다. 보건대 학생들은 본교의 도서관에도 들어갈 수 없었고 심지어 총학생회 투표권도 없다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학교 당국은 이에 항의해 본관을 찾은 보건대 학생들에게 "폐교된 학교 학생들", "전문대는 나가라"는 등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진정서 한 장을 전달하려고 보건대 학생들과 함께 17시간을 본관에서 지낸 안암 캠퍼스의 학생 7명은, "교수 감금"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결국 학교에서 영원히 쫓겨났습니다. 출교당한 학생들은 그동안 등록금 인상 반대 운동, 삼성 이근희 회장 박사학위수여 반대 시위 등으로 이미 학교에 "찍혀 온" 학생들이었습니다. 부당한 징계에 항의하기 위해 출교 학생들

은 벌써 410일째 본관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하면서 복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나긴 천막 생활로 이미 한 명의 여학생은 무릎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두 명의 학생도 허리와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비닐하우스와도 같은 천막 안 실내온도가 40도를 넘나들고, 겨울에는 추위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학교 당국은 학생들의 무조건적 사과 없이는 총장님과의 대화조차 불가능하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출교 학생들이 건강을 되찾고 곳곳이 싸워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요.

홈페이지에 와서 지지글/지지성명을 남겨주세요. 그동안의 투쟁과정도 보실 수 있습니다.

참, 홈페이지에 있는 웹자보를 각자의 커뮤니티 게시판에 퍼 날라주세요! ^^

<http://dub.cyworld.com/comebackku>

## 한국외대 법원의 "징계 무효" 판결도 무시

**허위사실 유포'**  
지난 288일 동안 한국외대 당국이 조명훈 학우(영어 4)에게 덧씌운 누명입니다. 조명훈 학우는 일부 보직교수들이 파업 중인 직원 노동자를 폭행하고 여성 노동자를 성희롱한 것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무기정학'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폭력과 성희롱을 증명하는 분명한 사진과 동영상도 있었지만 학교 당국은 '허위사실 유포'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당국의 권위주의도 진실을 가릴 순 없었습니다. 지난해 8월 징계 처분 이후 꼭 여덟 달 만인 올해 4월 18일, 국가인권위는 보직교수의 성희롱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무기정학 징계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학교 당국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했고,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을 저지른 교수가 직접 나서 우리 징계대책위 대자보를 붙여주는 충격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학교 당국이 진실을 숨기는 데만 골몰하는 동안, 조명훈 학우는 무기정학 상태로 288일을 보냈습니다. 졸업까지 단 5학점을 남겨두고, 또 반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학교가 대법원 항소도 마다하지 않는다면 복학까지 몇 년이 걸릴지 아득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인정 받고 조명훈 학우가 웃으며 강의실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비판의 자유를 지키는 것, 우리는 이것이 대학에서 추구해야 할 진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외대 당국의 항소로, 조명훈 학우는 당장 수백만 원에 달하는 2심 재판 비용을 마련해야 할 처지입니다.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싸움에 힘을 보태주세요!

후원 | 제일은행 132-20-661393 (여승주)  
조명훈 학우에게 격려의 문자메세지를 보내주세요!

010-4670-1392

# 동덕여대 무기정학 징계철회 후 검찰 기소!

2003년 비리 족벌 재단 퇴진 투쟁 승리를 거둔 후 총장으로 선임된 동덕여대 손봉호 전 총장은 부당한 등록금 인상, 독단적인 밀실 행정, 일방적인 대학구조개혁 추진으로 구성원들의 기대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반민주적 치부를 가리기 위해 구성원들을 향한 탄압도 시작했습니다. 직원 노조 무력화를 위한 탄압에 이어 학교당국을 비판하는 학보사 기자 전원을 해임하더니, 급기야 2006년에는 총학생회를 불인정하는 사태까지 일으켰습니다.

계속된 대화 요청에도 불구하고 두 눈과 귀를 막은 손봉호 전 총장은 '부당한 등록금 인상철회·대학 평의위원회 등 학생요구안 실현·자치권 탄압 반대'를 요구하며 총장실을 점거한 학생 10명에 대해 무기·유기정학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독단적인 학교운영과 학생 탄압으로 학내 갈등을 초래한 손봉호 전 총장은 결국 해임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원천 무효되고, 2007년 등록금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동결되는 등 2006년 동덕여대 교육투쟁은 승리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총장실 점거 당시 학교당국의 수사 의뢰로 5명의 학생이 '업무 방해'와 '주거 침입'으로 기소됐고, 현재 1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예상되는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손봉호 전 총장은 자신의 해임이 부당하다며 계속 복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동덕여대를 파국으로 치닫게 한 잘못은 인정하지 않은 채 권력을 이용해 학생들을 전과자로 만들려는 손봉호 전 총장의 복귀 시도는, 그동안 사회원로로서 쌓아온 '도덕 군자'라는 수식 이 가면에도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줍니다.

학생 자치 탄압하고 학생을 범죄자로 내모는 손봉호는 동덕여대에 복귀할 수 없다!! 동덕인의 총장실 점거는 정당하다. 법적 처벌 철저히!! 학생 자치권 쟁취하고 민주 대학 건설하자!

# 언론에 비친 학생징계

한겨레 6월 1일자 사설

## '출교 재판', 고려대는 수치스럽지 않은가

이른바 '교수 감금 사건'으로 출교당한 고려대 학생들의 출교처분 무효소송 첫 변론이 어제 열렸다. 결국 스승과 제자가 피고와 원고로 법정에서 선 것이다. 마땅히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법률적 판단에 맡겨졌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학교 구성원들이나 시민사회에서 강력히 요청했는데도 합리적인 해결을 거부한 학교 당국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학교가 학생에게 내리는 징계는 사법처리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징벌을 우선시하는 사법처리와 달리 학교의 징계는 교육적 효과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징벌보다는 자성을 이끌어내는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다. 학교의 징계는 그 자체로 교육인 것이다. 그러나 고려대 당국은 반성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학생들에게 '사형선고'에 해당하는 출교처분을 내렸다. 지난 400여일 동안 대화와 화해의 시도도 없었다. 한국의 고등교육을 이끌어 왔다고 자부하는 대학으로서 치졸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사실 학원에서도 그렇게는 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법원은 원하던 원치 않든 출교조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 이른바 '교수 감금'은, 지난해 통합돼 고려대의 성원이 된 옛 보건전문대 학생들에 대한 학생회 투표권 부여 여부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 학생 자치기구의 선거권에 관한 사항이고, 통합의 취지에 따를 때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사안이다. 그러나 학교 당국은 보건대생의 학생회 투표권을 거부했다. 보건대생들의 요구서조차 받으려 하지 않았다. 이 요구서를 억지로라도 내려다 빚어진 게 이른바 '감금'이다. 이후 학교 쪽은 학생들이 온갖 패륜 패덕한 짓을 했다고 세상에 알렸다. 그러나 그 내용을 두고서도 이론이 많다. 여론 재판으로 내몰기 위한 허위·과장이 많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엄정하게 살피, 출교의 정당성을 따져야 한다. 아울러 학교 당국은 이 치욕스런 재판이 빨리 끝나도록 교육적 해결을 서두르기 바란다. 학생들은 시행착오를 통해 얕의 폭과 깊이가 심화되며 인격이 성숙된다. 시행착오 때마다 징벌하고, 나아가 학생 자적까지 박탈한다면 교육이란 존재할 수 없다. 퇴출 대상은 오히려 그런 학교다. 아울러 교권은 학칙으로 확보되는 게 아니다. 학생들의 존경심과 동의가 없다면 교수란 지식 장사처에 불과함을 알아야 한다.

한겨레 6월 1일자 사회면 (8면) 기사

## 청춘 저당잡힌 학생들의 '힘겨운 싸움'

고려대 7명, 출교처분 무효소송 조정 실패 뒤 첫 재판  
외대생 무기정학...1심 "징계권 남용"에 학교쪽 항소

고려대학교 본관 앞에 파란 천막이 서 있다. 고려대 출교생 7명이 408일째 항의 농성을 벌이고 있는 농성장이다.

2006년 4월 이들을 포함한 고려대 학생 150여명은 고려대와 통합된 보건대 학생들에게도 총학생회 선거 투표권을 인정해 달라고 학교 쪽에 요구했다 거부당하자 본관 점거에 나섰다. 본관 계단에 앉아 항의하던 학생들 탓에 보직교수 9명은 16시간 동안 바깥으로 나가지 못했다. 이에 고려대는 '출교'라는 사상 초유의 징계로 맞섰다.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었다.

출교생들은 이 징계 처분이 2005년 이근희 삼성그룹 회장의 명예철학박사 학위 수여 반대시위를 벌인 데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출교생 7명 가운데 5명은 당시 반대시위를 주도했던 학생단체 '다함께' 회원이고 직접 시위에도 참여했다. '다함께' 회원이 아닌 조정식(25)씨는 상벌위원회에서 "너도 '다함께' 나?"라는 질문을 받았다. 조씨는 "그런 건 왜 묻느냐"고 되물었을 뿐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

출교된 뒤 시작한 천막 생활은 쉽지 않았다. 겨울이면 실내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고 여름이면 35도까지 치솟는다. 오랜 천막 생활과 연좌 농성으로 건강도 나빠졌다. 출교생 김지운(23)씨는 무릎 연골이 파열돼 지난 21일 수술을 받았고, 주병준(23)씨는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아 한시간 이상 앉아 있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보다 못한 졸업생들이 출교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올해 봄부터 항의 표시로 '졸업증

반납 운동'을 벌여 지금까지 모인 졸업증이 50여장에 이른다.

하지만 강선보 고려대 학생처장은 "먼저 학생들이 대오각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교생들은 "출교 조처가 부당할 뿐 아니라, 이후 학교 쪽이 진지한 대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외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영어과 4학년 조명훈(27)씨는 '보직교수들이 파업 노동자들을 폭행하고 성희롱했다'는 내용의 벽보를 붙였다가 지난해 8월 '교직원에 대한 패덕 행위'라는 이유로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은 5월 10일 조씨가 낸 소송에서 "무기정학 처분은 징계권 남용"이라며 조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한국외대가 항소를 하는 바람에 조씨의 복학은 또 미뤄지게 됐다.

한국외대는 합동처장단 회의를 통해 "학교가 받는 심각한 명예훼손은 결코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씨는 "5학점만 더 들으면 졸업"이라며 "돈으로도 이 시간을 보상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3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562호 법정에서는 고려대 출교생들이 학교 쪽을 상대로 낸 출교처분 무효확인 소송 재판이 열렸다. 조정이 실패한 뒤 처음 열린 이날 재판은 증인 신청만으로 짧게 끝났지만, 이는 출교생들의 청춘을 희생시킬 기나긴 재판의 시작일 뿐이었다.